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협력위원회 출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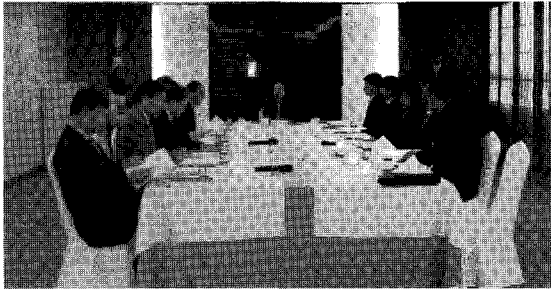
각종 교육현안의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사회적 협력기구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육협력위원회'에는 대학총장,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중요한 교육적 현안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6일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임시 의장을 맡은 권성 언론증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 아래 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이후 10월 19일에 제2차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가능한 한 달에 한번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교육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교육의제에 대한 사전 실무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차에 걸친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요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주요 기능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교육문제 논의, 고교-대학 간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한 사항 논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제언,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사항 논의, 기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협력과 관련한 중요 사항 논의 등이 폭 넓게 포함될 예정이어서 교육협력위원회의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에 걸친 회의에서 위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바란다는데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활동을 요구하는 학원 등 일부 사교육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를 특히 우려하고 있었으며, 입학사정관들이 학교교육 내에 가능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향후에 올바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을 위해 학부모, 학생 및 일선 교사에게 정확히 홍보하는 일이 핵심임을 표명하였으며,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강화, 홍보자료 배포,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등 입학사정관 전형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대교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요구하였다. 향후에 이를 통해 향후 대입 문제나 대학자율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보다 충실히 교육을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이 어려운 교육현안이나 긴급히 기관 상호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는 교육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

표 1.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인원	위원
위원장	1	이배용(대교협 회장, 이화여대 총장)
대학	4	서거석(대교협 부회장, 전북대 총장) 이기수(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총장) 이장무(서울대 총장) 김영길(한동대 총장)
교육감	2	공정택(서울시교육감) 설동근(부산시교육감)
교육전문가	4	김성열(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민경찬(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교수) 이옥식(한가람고등학교 교장) 전병식(전곡초등학교 교장)
법조계	1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계	1	권영빈(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산업계	1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과학기술계	1	이영무(한양대 교수)
학부모대표	1	신금봉(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정부	1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교협	1	박종렬(사무총장)
계	18	

